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 폼페이오 오늘 평양 방문 “비핵화 시간표 제시 않겠다”

### 불탄 보좌관 “1년 내 비핵화”와 다른 해법 ... 북한 상대 전략적 유연성 발휘할 듯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세 번째 방북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또다시 엇갈리고 있다. 협상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 ‘비핵화 시간표’를 놓고 서로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이 단적인 예로 꼽힌다.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최근 언론에 나와 ‘1년 내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정작 대북 협상파인 마이크 폼페이오가 이끄는 미국 국무부는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헤더 나이트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볼턴 보좌관의 ‘1년 내 비핵화’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일부 인사들(individuals)이 시간표를 제시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것(비핵화)에 대해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이 지난 1일 방송 인터뷰에

서 “미국이 핵 및 생화학 무기, 미사일 등을 1년 이내에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으며, 북한이 협조한다면 매우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발언한데 대한 국무부 차원의 답변이었다.

주목할 대목은 나이트 대변인이 볼턴 보좌관을 ‘일부 인사’로 지칭하고, 나아가 볼턴 보좌관과 달리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공식 브리핑에서 백악관 안보사령관인 볼턴 보좌관을 가리키며 언급했다는 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끄는 국무부가 볼턴 보좌관을 견제하거나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는 시도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여기에는 대북 접근법을 둘러싸고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목은 같등’이 반영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본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을 중시하면서 북한을 상대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반면에, 볼

턴 보좌관은 북한을 상대로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슈퍼 매파’다. 역사적 6·12 북미정상회담 국면에서 두 사람의 ‘이견’은 수면 아래로 잠복해있었지만, 비핵화의 구체적 밑그림을 그릴 후속협상을 앞두고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두 사람이 강-은 양면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역할 분담을 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을 상대로 협상력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려는 ‘굿-베드-캡’ 전략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비핵화 시간표를 둘러싼 메시지의 혼선은 두 사람의 관계에 무언가 손조림지 못한 대목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를 두고 외교계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볼턴 보좌관이 마치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이 ‘1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이 국무부의 심기를 불평

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볼턴의 ‘1년 비핵화 언급’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북한이 비핵화 의도가 없으며 핵 시설을 은폐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 잇따르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시각이 나온다.

협상을 직접 맡은 국무부로서는 볼턴 보좌관의 ‘개입’에 불쾌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볼턴 ‘비핵화 시간표’ 제시 여부는 협상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장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성과에 집착해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보다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큰 틀에서 ‘비핵화 시간표’를 만들어내고 이를 토대로 조속한 이행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를 보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매사이 지구 탐루엡 동굴 안에서 실종됐다가 무사한 상태로 발견된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을 모습. 태국 해군이 지난 2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다. /연합뉴스

## 태국 ‘동굴 실종’ 유소년 축구팀 13명 열흘만에 찾았지만 구조 방법 ‘딜레마’

### 건강상태 고려 신중 목소리

실종 열흘 만에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된 태국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과 코치의 구조 방법을 두고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태국 정부는 그쳤던 비가 더 내려 동굴 내 물길의 수위가 높아지기 전에 생존자들을 구출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수영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아누퐁 파오진다 태국 내무부 장관은 더 많은 비가 내리기 전에 동굴에 갇힌 13명의 소년과 코치를 주요 통로를 통해 밖으로 데리고 나온다는 계획을 3일 밝혔다.

동굴 안에 고인 물을 최대한 빼낸 뒤 구조대원의 동반 아래 생존자들을 서둘러 동굴 밖으로 빼낸다는 계획이다. 구조대원의 근접 동행이 불가능한 일부 구간

에서는 잠수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비해 잠수 교육도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영은 물론 잠수에도 익숙지 않은 아이들을 서둘러 구조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이들이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체력을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구조 시기와 방법은 소년들의 준비 상태에 달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비가 더 내려 동굴 내 수위가 높아질 경우 아이들을 빼내는 일이 더 어려워지고 위험해진다. 최악에는 생존자들이 이 우기가 끝날 때까지 몇 달을 더 동굴 안에서 버텨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날씨가 구조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동굴 잠수 전문가인 벤 레이메넨츠는 “어떤 구조전략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데 날씨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중국,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앞두고

### 푸른하늘 되찾기 대기오염 통제 계획 발표

중국 정부가 2022년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 개최 등을 앞두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통제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4일 관영 인민망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내각 격)은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경제·사회·기술·행정적 수단을 통합하고, 구체적인 시간표와 일정을 제시했다.

‘푸른 하늘 되찾기 3개년 행동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석탄 발전 보일러를 통해 대기로 배출되는 이산화황, 가스 사용 보일러를 통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2015년 수준에 비해 15% 이상 감축하도록 했다.

또 대기오염 핵심 지표인 PM 2.5(지름 2.5μm 이하의 초미세먼지) 농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도시는 2015년 PM 2.5 농도보다 18% 이상 낮추기로 했다.

2선 도시인 지푸(地氈) 이상 도시는 ‘공기가 양호한 일수(日數)’를 연간 전체 일수의 80%까지 도달시키고, ‘심각한 오염 일수’를 2015년에 비해 25% 이상 낮춰야 한다.

대기오염 개선 노력은 특히 수도권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와 주변 지역, 남부 장강(長江·양쯔강) 삼각주 지역, 펀웨이(汾渭) 평원 등지에 집중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국내용 발언은 외교 아나 남북문제 결과 내야”

### 日 전직관료 아베에 쓴소리

2000년대 초반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일본의 전직 관료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북한과 관련해 국내용 발언을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전 외무성관(차관보급)은 전날 일본 도쿄(東京)의 일본기자클럽에서 강연을 통해 “아베 총리가 국내에 위세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며 “남치 문제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가”라고 물었다.

다나카 전 관료는 2002년 첫 북일 정상회담 당시 협상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이날 발언은 아베 총리가 우익들을 겨냥해 국내용으로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내면서 남북 문제에 대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아베 총리에 대해 “북한에 대한 강한 자세를 이용해 총리의 계단에 올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이 전략을 보이지 않으면 미국, 중국으로부터 무시 당할 것”이라면서 다만 “갑작스러운 북일 정상회담보다는 착실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페리선 좌초 ... 구조 기다리는 승객들 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남(南)술라웨시주(州) 술라웨시섬 파 바딜랑 해안 300m 해상에서 좌초한 페리선 갑판 위로 승객들이 몰려나와 초조한 모습으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회의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 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